

산 속에 또다시 피어나는 '희망'

-양평 희망의 집



새로이 단장한 희망의 집은 이제 더 많은 식구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12명의 남자 환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총 45명의 남자 환자가 요양 할 수 있다.

아주 어릴적 기억이라도 되살려야 겨우 익숙하게 느껴질만큼 양평 희망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낯설을 정도로 정감어리다. 농노로 겨우 쓸 수 있을 정도로 비좁게 놓여진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비로소 자연 한 가운데 서 있는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얼마 전 신축 공사를 마친 상태라 아직은 사람의 기운에 익지 않은 듯하지만, 앞으로 무럭무럭 얼마든지 희망의 웃음이 쏟아져 나올 법한 그런 예쁜 집이다.

“새로운 집으로 오니 다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려고들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것부터도 희망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그렇지만, 미안해요.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분들도 많은데...그래도 이분들은 평생 단 한 번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희망의 집의 박루가 원장 수녀는 새 집을 짓자 환자들 개개인도 예전에 갖고 있던 서로간의 쌓인 감정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며 여러모로 좋은 계기가 될 거라 한다. 물론 현재 5명의 수녀들이 이 넓은 시설을 관리하며 수도생활을 해낼 생각을 하면 대안이 안서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핵 환자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이들의 생각이 희망적인 결과로 돌아오길 기대할 뿐이다.

“여기서 살다 삶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이 곳 생활을 통해 재활 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내면서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개를 키운다거나,
 농사를 짓는다거나,
 세차장을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분들은 다 나가서
 다시 뛰어야 할 분들입니다.”

다시 뿔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우는 곳

희망의 집은 1979년 가톨릭 평신도, 성직자, 수도자 등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 개원하였다. 현재 총 12명의 환자들이 수용되어 결핵 치료 및 요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인가 시설로 순수 민간 단체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력 수급과 같은 문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한 달에 한 두 번씩 본회 복신자지원 김성광 원장이 방문하여 환자들을 진료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결핵 남자 환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때로는 양로원처럼 생각하고 입소하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 입소시부터 1년이란 목표 기간을 두고 환자를 받는다 고 한다.

“여기서 살다 삶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이 곳 생활을 통해 재활 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내면서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개를 키운다거나, 농사를 짓는다거나, 세차장을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분들은 다 나가서 뛰어야 할 분들입니다.”



희망원 식구에게 컴퓨터 문서 작성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박루까 원장 수녀

환자의 대부분은 가정이 없고 무의무탁인 경우가 많지만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도 다시 뿔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곳이 바로 이곳 양평 희망의 집이다.

글 · 홍미정(본지기자)

주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2리 157 우)476-850
 전화: 031-773-3518, 0218